

서울여자간호대학교

2025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의원정수	11명	재적의원	11명
------	-----	------	-----

1. 일 시 : 2025년 4월 28일 13:30 ~ 10: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5년 4월 15일)

2. 장 소 : 본관 3층 회의실

3. 출석 평의원 : 8명

- 의 장 : 이영란 (교원)
- 평의원 : 김경희 (교원)
- 평의원 : 이윤정 (교원)
- 평의원 : 황혜영 (교원)
- 평의원 : 박성우 (직원)
- 평의원 : 이소영 (조교)
- 평의원 : 이영화 (외부인사)
- 평의원 : 이다인 (학생)

4. 불참 평의원 : 3명

- 평의원 : 한형숙 (동문)
- 평의원 : 이정석 (외부인사)
- 평의원 : 박민하 (학생)

5. 참관인 : 3명

- 전진산 사무처장, 성시문 기획팀장, 기획처 유성미 직원

6. 회의안건

- (1)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선출
- (2) 학칙 개정 심의

간서명	이영란	황혜영	박성우
-----	-----	-----	-----

- (3) 202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자문
- (4) 2025학년도 교비회계 추경1차 자문

유진욱 간사

2025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의원 11명 중 8명이 출석하여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 보고하다.

이영란 의장

오늘 회의는 아래 안건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음을 알리고, 오후 1시30분부로 개회를 선언하다.

7. 회의 내용

제1안건 :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선출

이영란 의장

평의원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유진욱 간사

임도리 부의장의 출산휴가로 인한 사임과 학생 평의원 2명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박성우 평의원과 박민하, 이다인 평의원이 새로 참석하였음을 알리다. 아울러 부의장의 사임으로 인한 신규 부의장 선출이 필요함을 말하다.

이영란 의장

법인 정관 32조의4, 32조의5 에 근거하여, 부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말하다. 평의원들에게 부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말하다.

이윤정 의원

김경희 의원을 추천하다.

김경희 의원

이윤정 의원을 추천하다.

이영란 의장

간서명	이영란	황재영	박성우
-----	-----	-----	-----

이윤정 의원이 김경희 의원을 후보로 추천했고, 김경희 의원은 이윤정 의원을 후보로 추천했음을 말한다.

황해영 의원
박성우 의원을 추천하다.

이영란 의장
평의회회 규정에 부의장의 임기와 부의장의 역할이 의장 부재 시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영화 의원
부의장은 의장과 같이 페어링이 되어 하므로 의장이 지명하는게 어떠냐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부의장 선출은 호선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평의원의 임기는 10월까지라고 말한다.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의지할 수 있고 같이 페어링 할 수 있다면 김경희 의원이 해주시면 더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김경희 의원
평의원은 교수직급에서 2명, 부교수직급에서 1명, 조교수직급에서 1명이 하기 때문에, 교수직급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윤정 의원과 박성우 의원을 추천하다.

이윤정 의원
평의원 배분은 교수 직급부터 직원 등 골고루 되어 있으나, 의장과 부의장의 역할은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박성우 의원의 의견을 요청하다.

박성우 의원
이윤정 의원이 했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이윤정 의원의 의견을 요청하다.

간서명		황해영	박성우
-----	---	-----	-----

이윤정 의원

김경희 의원을 추천한 이유가, 의장 부재 시 전체를 감안하게 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학교 상황이나 좀 오래 계신 분이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경희 의원을 추천했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김경희 의원이 거절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하고, 이윤정 의원과 박성우 의원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으로 부의장 후보로 하고, 선출방법은 거수로 한다고 말한다.

이윤정 의원이 부의장이 되었으면 하는 의원은 손을 들고 말한다.

평의원

6명이 손을 들다

이영란 의장

박성우 의원이 부의장이 되었으면 하는 의원은 손을 들고 말한다.

평의원

1명이 손을 들다.

이영란 의장

거수로 선출한 결과 이윤정 의원이 평의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말한다.

제2안건 : 학칙 개정 심의


이영란 의장

학칙개정안은 제16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5조(부속기관), 제86조(부설기관)이며, 이번 학칙 개정은 2024학년도 제4차 안건이었으나 이번에 재심의로 진행되며, 정관 95조와 학칙, 직제규정의 일치성을 위해 학칙이 개정이 된다고 사유를 말한다.

2024학년도 제4차 회의 때, 타 대학에는 없는 서울 sim-tec과 단과대학에는 없는 학교기업 등이 학칙에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이번에 재심의를 하게 되었다는 부연 설명을 하다.

정관. 제96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학칙. 제85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간서명		황재영	박성우
-----	---	-----	-----

학칙. 제86조(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는 학교 및 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을 둔다.

직제규정. 제3절 제13조(부속·부설기관) ①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제96조에 의거하여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라고 현 정관, 학칙, 직제규정을 말한다.

학칙개정안은 제85조(부속기관)은 (부속 및 부설기관)으로 변경되며, 제86조(부설기관)은 삭제된다고 말한다.

아울러 직제 규정에 있는 제3절 제13조를 확인하고, 학칙을 개정할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을 의원들에게 요청하다.

이영화 의원

학칙에 학교의 특징이 되는 기관이 명시돼 있는 게 좋지 않느냐고 했는데, 학칙은 중요한 규정이고 규칙인데, 학칙에 기관명을 명시하면 신규 조직 등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삭제할 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느냐고 말한다.

아울러 교육부 등의 평가에 따라 매년 학칙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하고, 담당 부서에서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대학 조직도에 표시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정관 제96조(부속시설)를 보면 부속시설이라고 되어 있어, 학칙과 직제규정에는 부속기관, 부설기관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영화 의원

시설과 기관 명칭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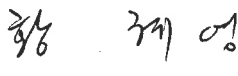

정관에 부속시설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다.

이영화 의원

정관은 법인에 맡기고, 학칙 변경에서는 부속기관과 부설기관이라는 상징성이나 아니면 유연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외부평가를 가면 대학평가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학칙이기 때문에, 학칙에 부속기관이나 부설기관이 나와 있지 않으면 평가시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게 좋다는 의견이 지난 평의원회회의 학칙개정심의 때에 있었다고 말한다.

간서명			
-----	---	---	---

이영화 의원

담당부서에서는 부속기관을 둔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 규정으로 한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속기관과 부설기관은 상징성이나 아니면 유연성이 우선되느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그러면 학칙 제85조(부속기관)와 제86조(부설기관)를 합하여 제85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로 가는 것과 제85조(부속기관)와 제86조(부설기관) 따로 가는 것을 거수로 정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제85조와 제86조를 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기를 요청하다.

평의원

7명이 손을 들다.

이영란 의장

만장일치로 제85조와 제86조를 합하는 것에 찬성하였다고 말한다.

학칙개정에 대해 평의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를 묻고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학칙 개정안 제85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말한다.

제3안건 : 202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자문

이영란 의장

2024학년도 교비회계에 대한 결산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2조(기능) 5호에 의거하여 자문한다고 말한다.

2024학년도 추경예산 2차 자료와 결산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면 한다고 말한다.

보고자료 1페이지에 결산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다고 말한다.

결산서 요약에 내부거래 제거에 대해서, 동일 회계 내에서 발생한 거래를 결산서 상에서 제거하여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넘어간다고 말한다.

보고자료에서는 내부거래 제거, 미사용차기 이월자금, 특정목적적립금에 있는 발전기부금, 전입금 내역에 건물가액을 산입처리한 부분, 노후 사무용 처리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고 말

간서명	이영란	황재영	박서우
-----	-----	-----	-----

하다.

별첨자료에서는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내용과, 발전기부금과의 차이, 기타유동부채를 확인한다고 말하다.

아울러 직원퇴직금 확인, 전출금의 처리내용, 유동부채, 내부거래, 전출금을 확인한다고 말하다.

이영란 의장

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진산 사무처장에게 듣고자, 평의원들에게 사무처장의 회의 참석에 대한 의견을 묻다.

평의원

전진산 사무처장 참석에 동의하다.

이영란 의장

전진산 사무처장에게 연락하여, 회의에 참석하라고 간사에게 요청하다.

유진욱 간사

사무처장에게 통화하고, 회의실로 오기로 했다고 말하다.

오후 2시 20분에 전진산 사무처장이 회의에 참석하다.

이영란 의장

회의 참석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결산자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묻다.

전진산 사무처장

감사받은 일정에 대해 보고하고, 외부 회계감사와 내부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4월 25일에 감사보고서가 책자로 나왔다고 말하다.


이영란 의장

외부 회계감사와 내부 회계감사를 받은 자료라 신뢰를 하지만, 결산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 말하다.

보고자료에 내부거래 제거라는 부분이 있는데, 회계감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묻다.

전진산 사무처장

내부 거래 제도에 대해, 자금 계산서는 사실상 현금 흐름표 같은 개념이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자금 계산서에 작성을 한다고 설명하다.

간서명		황 계 영	박 태 우
-----	---	-------	-------

휴먼캐슬에서 학교로 1억원을 전출하고 학교는 1억원이 전입이 되었지만, 동일한 비등록금 회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거래로서 서로 제거가 된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그럼 전체로 보면 0원이 되는게 맞냐고 묻다.

전진산 사무처장

맞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그럼 1억원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묻다.

전진산 사무처장

1억원 중에는 5천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적립 예정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학교운영비로 사용 예정이라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장학적립금에 대해 묻다.

전진산 사무처장

장학적립금은 이자만 적립되었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기부금은 어떻게 되는지 묻다.

전진산 사무처장

기부금은 당해연도에 들어온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라고 설명하다.

이영란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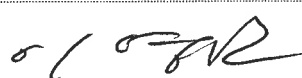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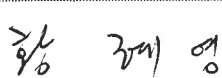

직원퇴직금의 설명을 요청하다.

전진산 사무처장

휴먼캐슬에서 발생하는 직원에 대한 1년치 퇴직금 총액이라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비등록회계(내부거래제거)와 (내부거래제거)의 차이점을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간서명			
-----	---	---	---

전진산 사무처장

법인에서 학교로 넘겨준 건물에 대한 회계비용이라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건물에 대한 건물가격이냐고 묻다.

전진산 사무처장

맞다고 말하고, 그 금액에서부터 감가상각이 진행된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등록금 선수금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다.

전진산 사무처장

2월 28일 이전에 재학생과 신입생이 등록금을 납부하는데, 이 금액은 2025학년도 수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빚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등록금을 먼저 받았다는 의미로 등록금 선수금이라 한다고 말한다.

등록금 선수금보다 예금 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예금에서 빼 쓰는 일 없이, 아주 양호하게 회계 결산 예금 규모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평의원에게 추가로 질문이 있는지 묻다.

박성우 의원

노후 컴퓨터 교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전진산 사무처장

회계처리가 마무리되기 전에 기타 이월금이 1%에 육박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2025년에 계획하고 있던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시기를 앞당겨서 집행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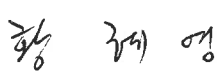

이영란 의장

학생용으로 교체했는지 묻다.

전진산 사무처장

학생용 컴퓨터는 올해 2월에 IT라운지에 있는 컴퓨터를 혁신사업으로 전부 교체하였으며, 교원들도 올해 컴퓨터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다만, 혁신사업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행정직원에 대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였다고 말한다.

간서명			
-----	---	---	---

이영란 의장

입시 관련 시설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전진산 사무처장

시설사용료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등록금 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법인 전입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전진산 사무처장

법인 전입금은 이자 수입으로 총당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다.

오후 2시 55분에 전진산 사무처장이 회의에서 퇴장하다.

이영란 의장

평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지 묻다.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202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자문이 끝났다고 말한다.

제4안건 : 2025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 1차 자문

이영란 의장

평의원에게 기획처에서 제출한 예산총칙에 있는 6가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다.




위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획처 직원에게 듣고자, 평의원들에게 회의 참석에 대한 의견을 묻다.

평의원

기획처 직원의 회의참석에 동의하다.

이영란 의장

기획처에 연락하여, 회의에 참석하라고 간사에게 요청하다.

간서명			
-----	---	---	---

유진욱 간사

기획처에 연락했고, 회의실로 오기로 했다고 말하다.

오후 3시 05분에 성시문 기획팀장과 유성미 직원이 회의에 참석하다.

이영란 의장

회의 참석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2025학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2024학년도 예산과 2025학년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 확보와 연계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성시문 기획팀장

추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하다.

보통 추경1차는 11월경에 하고 추경2차는 학년도 말에 진행하나, 추경1차를 서둘러 진행한 이유는 비전체계가 기존에 2025플러스에서 새롭게 2030으로 수립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추경1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다.

그래서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경1차를 하는 과정이었고, 기존의 2025플러스에는 전략과제 8개, 실행 과제 30개가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5월 20일 이후에, 2030비전으로 조속히 전환하는데 이 부분이 전략과제 15개, 실행 과제가 42개로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다.

2025와 2023의 과제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라고 말하다.

추경1차는 본예산 대비 22.2%가 증가하였다고 말하다.


등록금회계에서는 수입은 변동이 거의 없으나, 지출은 관리운영비와 연구.학생경비 등에서 증감사유가 발생했다고 말하다.

비등록금 회계는 비전 체계가 2025에서 2030으로 전환되면서, 5월 20일을 기준으로 국가보조금(국가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의 교부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서, 본예산과 추경1차 등록금 수입 및 수강료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하다.

본예산과 추경1차 전환 기점 전후로 중복으로 편성했다고 말하다.

비등록금회계(학교기업)는 대학의 비전 체계와는 무관하게 자구적인 예산의 변동이 있다고 말하다.

수입에서는 예금이자 증가와 결산(이월자금)을 통해서 증액이 되었으며, 지출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식재료비의 증가와 기자재 구매 취소 등의 사유로 증감이 발생했다고 말하다.

간서명		한 세명	박 세 우
-----	---	------	-------

이영란 의장

이영화 의원에게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라고 요청하다.

이영화 의원

비등록금회계에서 전입 및 기부수입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래도 거의 2배가 증가된 것은 혁신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2배로 한 것이 아닌지 질문하다.

성시문 기획팀장

혁신사업은 산단회계로 한다고 말하다.

이영화 의원

그럼 2배가량 증액된 것은 중복 편성인데, 중복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다.

유성미 직원

비전 2025와 2030이 같은 회계연도에 들어가므로 5월 20일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결산을 통해서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이영란 의장

추경2차에서 다시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유성미 직원

만약에 중복 편성을 하지 않고 5월 20일 이후에 예산이 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비전 2030 예산을 넣게 되면, 5월 20일 이전에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통합 대비 실적 부분에 금액이 마이너스 처리가 된다고 말하다.




5월 20일 이후에 예산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비전 2030의 예산을 잡았는데 5월 20일 전에 돈이 들어와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자금계산서에는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금액을 써버려서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편성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다.

이영화 의원

그러면 추경2차에서는 중복 비용이 없어지냐고 말하다.

유성미 직원

맞다고 말하고, 예산을 사용할 때는 예산 외 사용을 금지를 하는 때문에, 예산이 잡힌 상태로

간서명			
-----	---	---	---

돈을 써야 된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원

이것은 추경1차가 아니라, 본예산때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말한다.

이영화 의원

중복으로 수입을 잡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유성미 직원

그래서 주석을 달았으며, 2025에서 2030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말한다.

성시문 기획팀장

본예산부터 2030 실행 체제로 예산을 계획했으면 이런 회의를 거치지 않겠지만, 2030 비전 체계 시점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많은 고민을 하고 하면서 찾아낸 방안이라면서 양해를 구한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예산에 중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추가로 변경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며, 본 예산에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한다.

이영화 의원

2023비전이 회계연도 시작과 맞물리면서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한다.

성시문 기획팀장

사업 예산이 사업계획과 맞물리고, 2030의 시작을 내년에 실행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전례가 없지만 과도기 체제로 진행한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기획처에서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예산이 과도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증액을 했다가 또 다시 감액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평의원들 중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한다.

이윤정 의원

비전 체계 전환 실행과제 매칭표에 금액에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성시문 기획팀장

간서명			
-----	---	---	---

금액이 없는 부분은 사업이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혁신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공란이 되었다고 말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등록금 회계에서 복리후생비 증액(12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유성미 직원

복리후생비에 직원다과 또는 미화용품 구입이 있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등록금회계 총괄표를 보면서 기부금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유성미 직원

기부금에 최소 금액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기부금 수입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어서 증가했다고 말한다.

오후 3시 30분에 이다인 의원이 퇴장하다.

이영란 의장

미사용전기이월자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유성미 직원

등록금 회계는 회계 수익이 전체의 1%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비등록금회계에는 1% 이런 제한이 없고, 비등록금회계(학교기업)은 결산서에서의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예산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증가 됐다고 말한다.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만 보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비등록금회계에서 연구.학생경비가 많이 차이나는 이유를 묻다.

유성미 직원

장학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답하다.

이영화 의원

이것도 중복으로 잡히기 때문이냐고 묻다.

간서명			
-----	---	---	---

유성미 직원
맞다고 답하다.

이영란 의장
비등록금회계(학교기업)에서 투자와기타자산지출, 고정자산매입지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성시문 기획팀장
예금이자 수입증가와 계획했던 시설이나 기자재 구입 비용감소라고 말하다.

이영란 의장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는지 평의원들에게 묻다.

박성우 의원
요양보호사국가자격과정은 현재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다.

성시문 기획팀장
예산에 대한 수립이고, 현재 시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이라고 말하다.

이영란 의장
또 질의할 것이 있는지 평의원들에게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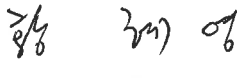

평의원
없다고 말하다.

이영란 의장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다.

오후 4시 05분에 성시문 기획팀장과 유성미 직원이 회의에서 퇴장하다.

이영란 의장
안건에 대해 추가 의견과 이의가 있는지를 평의원들에게 묻다.

박성우 의원
추가 안건으로 직원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현재 직원 평의원이 1명인데 1명을 추가로 더 요

간서명			
-----	---	---	---

청한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직원 평의원 관련 추천은 평의원회 규정을 보고, 규정 개정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한다.

박성우 의원

알았다고 말한다.

이영란 의장




안건에 대해 추가 의견과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25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 1차 자문이 끝났다고 말한다.

아울러 오늘 진행된 4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되었다고 말한다.

8. 폐회 선언

이영란 의장

상기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한 후, 오후 4시 10분에 폐회를 선언하고 하다. 간서명은 참석 평의원 중 호선하여 이영란 의장, 황혜영 의원, 박성우 의원이 하기로, 참석평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다.


간서명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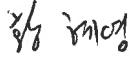
위 내용을 확인함.


2025년 4월 28일


대학평의원회 의 장 이 영 란 


평의원 김 경 희 


평의원 이 윤 정 




평의원 황 혜 영 

평의원 박 성 우 

평의원 이 소 영 

평의원 이 영 화 

평의원 이 다 인 

간서명			
-----	---	---	---